

유럽 순방 韓총리, 34개 BIE 회원국 대사 등 초청

## 파리서 '여수엑스포 지지' 외교전

6월 이어 두번째 ... 한국정부 의지 피력

유럽 4개국을 순방중인 한덕수 총리는 17일 프랑스 파리에 주재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한다.

한 총리는 이날 낮(한국시간 17일 저녁) 파리시내 포시즌 호텔에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모나코, 세네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우루과이, 우즈베키стан, 방글라데시 등 34개 BIE 회원국 대사 및 고위 외교관 등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한다.

포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다.

한 총리는 오찬에서 여수엑스포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 개발과 보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촌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이며, 개최 희망인 여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공장, 갯벌과 해양 보호구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박람회 개최의 적격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올림픽·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11년까지 약 200억 달러(19조원)을 투자해 도로와 속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서 여수엑스포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때에도 BIE 각국 대표들을 오·만찬에 초청, 여수엑스포 유치에 대한 각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 전남무역 청산

무역지원센터 신설키로

중계무역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오던 전남무역이 18일 주주총회에서 청산된다.

전남무역은 18일 오후 광주 무역관 12층 회의실에서 주총을 열고 법인 해산에 관한 안건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전남무역은 캐나다와 일본을 상대로 뇌자고기 중계무역을 벌이다 일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150억여원을 받지 못해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졌다.

전남무역이 청산됨에 따라 전남도는 10억여원의 출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으며 전남무역의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그동안 전남무역이 담당해온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역할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총리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BIE 대표들을 초청해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함으로써 엑스포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대사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은

"여수엑스포 대표를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자국에 보고토록 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의 경우 장관급 인사가 BIE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이 있지만 총리가 나선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div